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주관성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안이수
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Subjectivity about North Korean refugee : A Q-methodology Approach

Lee-Su Ahn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18명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세 가지의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대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구분되었다. 우호적 지지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그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낙인, 주관성, Q-방법론, 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gnizance of North Korean refugee by applying Q methodology, as well a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improving North Korean refugee's image. The study process let P sample, the study participants, use Q-sorting methodology to sort Q sample, which is composed of statements. 18 participants sorted 32 statements and 3 types of North Korean refugee cognizance were produced as a result. Those types are 1(N=8), 2(N=6), and 3(N=4), which are type favorable, type whereas negative stereotypical, and type neutralist. Favorable types agreed to ensure North Korean refugee groups' rights as a general protection, whereas negative stereotypical types had stro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s North Korean refugee groups due to lack of related knowledge. Furthermore, neutralist types showed an objection to negative stereotypes against North Korean refugee, but they did not entirely agree to North Korean refugee eith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etailed strategy to improve the social image of North Korean refugee.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Stigma, Subjectivity, Q-methodology, Type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수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영평(2006)은 소수자는 첫째, 신적·문화적 특성에 의해 타 집단과 다름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둘째, 경제적·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7

*Corresponding Author : Lee-Su Ahn(whynot@shinhan.ac.kr)

Received December 12,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January 15,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서 기존 사회구성원들 보다 뒤떨어지고 셋째,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넷째, 소수자 집단의식은 지속적 차별을 통해 전체적 연대의식으로 확대된다고 정리하였다[2,3]. 따라서 소수자란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특징 때문에 차별과 편견을 받는 동시에 본인들이 집단적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4].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8년도까지 947명에 불과했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서 2001년까지 1,043명이 입국하였다.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1,500명대로 입국인원이 축소되었고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서 2016년에는 약 80%를 보이고 있다[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나, 남북한 사회체제의 차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언어소통 문제, 경제적 자립능력의 부족, 소수자로 겪는 차별과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6]. 이와 같은 결과로 빈곤으로 인한 자살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범죄율, 정부의 무관심과 남한 내 차별로 인한 실업률 등이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이들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간절하게 요구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북한의 사회적 시각차이로 인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방법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통합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범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화는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통합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7].

그러나 60여 년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괴리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질적·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쉽게 북한이탈주민을 낙인화하는 경향이 있고, 낙인화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갈등요소이다. 따라서 이 같은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남한 주민들의 차별적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파악하거나 특정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연구 등은 있었다[6,8-11]. 남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에 중요함에 따라, 기존 연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한주민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남한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 주관성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주관적 관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의 가치관, 취향, 감정과 같은 주관적 속성을 규명하고 유사한 속성을 유형화할 수 있고, 분석방법으로 자결적 정의에 따라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12,13]. 최근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주관성 탐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Q방법론은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간호학, 의학, 보건학, 교육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3,14]. 따라서 Q방법론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라 하겠다.

2.1 Q표본

Q 방법은 어떤 모집단(P population)으로부터 추출한 사람들(P sample)에게 자극항목(진술문)의 집단(Q population)으로부터 추출한 표본(Q sample)의 Q sorting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Q 모집단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써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의 개념이며 Q표본(Q sample)은 Q모집단(Q population)으로부터 선택된다. 이를 선택하는 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추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새터민, 탈북자, 차별, 낙인, 인권, 국제난민, 생존권, 빈부격차, 인식개선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한 문헌고찰

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 진료 경험이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사회통합 관련 입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공무원 및 일반인 총 7명에게 성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편적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상단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수준 등과 관련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총 90개의 진술문 후보군을 생성하였다. 최초 Q표본은 비구조화 표본의 표집방법 중 하나인 난수표를 이용한 단순 무작위 표집 절차를 거쳐 50개가 선정되었는데, 본 연구 목적인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형을 기술하고, 연구자에 선정의 편견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도출 방법이라 하겠다. 더불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Q표본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관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 항목처럼 쉽고 빠르게 답을 할 수 없기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37개의 진술문을 생성하였다. 이후 사전검사(pre-test)와 Q sorting을 2회 반복 실시함으로써 신뢰도를 확인한 후 각각의 진술문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가를 판단하여 진술문의 균형을 점검하여 최종 32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12,13,15-23].

Table 1. Q-Statements

Item	Q-Statements
1	Privileged benefits for North Korea refugees should be improved.
2	Opportunities for mutual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should be increased.
3	Social adaptation train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easily blend into the new society.
4	Public media(films, TV drama, news) should keep from expressing negative image towards North Korea refugees.
5	If I were an employer on a job interview table, I would not hire a candidate who is a North Korean refugee.
6	If I were to pick a tenant for a resident I own, I would pick a native South Korean over a North Korean refugee.
7	I would not send my children to a school or an institute that has a North Korean refugee teaching the class.
8	I wouldn't like my children becoming friends with a child from a North Korean refugee family.
9	I would try to say the first hello to a new neighbor who is a North Korean refugee.
10	I wouldn't prefer to have a colleague on my neighboring desk to be a North Korean refugee.
11	North Korean refugees contribute in economic growth by providing lacking workforce.
12	Continuous increase of North Korean refugees burdens the South Korean citizens by increasing their tax pay.
13	North Korean refugees can also be on the same soci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as long as they work hard enough.
14	It would be hard for me to accept and trust a Congress member, a mayor, or a governor who is of a North Korean origin to represent the area I live in.

15	If I were single, I wouldn't mind dating a North Korean refugee.
16	It would be appropriate not to appoint a person that is a North Korean refugee on a posi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17	Instead of implementing a new specialized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we need to include them in the existing welfare system.
18	North Korean refugee and foreign immigrants should be looked at as two different groups.
19	I could care less about a North Korean refugee family in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I wouldn't like to have a next door neighbor that is a North Korean refugee.
20	A North Korean refugee who acquired South Korean citizenship should be given the same rights as native South Koreans on voting and social security.
21	I wouldn't mind my family member marrying a North Korean refugee.
22	Government's generous support poli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may reduce their self-sustainment.
23	Settlement support poli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is excessive compared to that of other marginalized (vulnerable) class in South Korea.
24	It's OK for South Korea to be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it still has a mission to achieve unification.
25	Continuous increase of North Korean refugees can cause social problems including unemployment and public disorder.
26	I wouldn't make a dentist appointment with a North Korean refugee who acquired a dental license in South Korea.
27	Even if it means a loss on national intere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bide by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8	It would not be right to restrict personal liberty for National security, just because there is a confrontation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9	Mandatory military service obligation should be waived for North Korean refugees.
30	Public institution quota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on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31	North Korean refugees are our fellow countrymen and we are the same people.
32	I would not like a North Korean refugee joining the same friendship group that I am in.

2.2 P표본

Q방법론은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P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요인의 수를 극도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소표본 원리에 따라야 한다[12,13]. 따라서 4년제 대학생 18명을 남녀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조사로 분류되어, 2017년 6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NO. SHIRB-201705-HR-030-02) 연구조사를 시행하였다.

2.3 Q-sorting

본 연구에서는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읽고 전체적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자신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9점 척도상에 강제 정규분포 하도록 하였다. Q표본 분류 과정은 진술문을 읽은 후 찬성(+), 중립(0), 반대(-)로 나눈 후, 찬성(반대)하는 진술문 중에서 적극 찬성(반대)하는 것을 골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양극단의 진술문에 대한 선택 이유는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토록 하였다.

2.4 자료처리

Q-sorting에서 가장 비동의(-4)부터 가장 동의(+4)까지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젠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와 전체적인 설명변량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석한 후 명명하였다.

Table 2. Eigenvalues and Variance

	Type1	Type2	Type3
Eigenvalue	5.6495	2.5710	1.3288
Percentages of Variance	0.3139	0.1428	0.0738
Cumulative total	0.3139	0.4567	0.5305

3.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각각 다른 세 가지의 유형으로 도출이 되었고, 각 유형마다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우호적 지지형’, 제2유형은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3유형은 ‘중립 추구형’으로 명명되었다.

3.1 제1유형 : 우호적 지지형

제1유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배려하고 존중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는 다문화주의적 사고를 가진 유형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단지 자기와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유형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문항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Q20).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동포이고 한민족이다.(Q31). 북한이

탈주민도 열심히 일하면 남한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Q13).’였다. 이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업,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시킨다.(Q25).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Q19).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속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 같다.(Q32).’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제1유형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인권적 시각의 특징으로 보여 지는 것은 (Q20), (Q31), (Q13)이 결합되어 우호적 및 감성적 구조를 드러내 준다. 반면에 (Q25), (Q19), (Q32) 의견은 인권 및 우호적 시각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 하겠다.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가 국가에게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분단국가이기는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한민족이고 동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1유형을 ‘우호적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1 Type : Factor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N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Factor weight
1 (N=8)	1	M	26	College student	1.5064
	8	F	27	College student	0.8287
	9	M	24	College student	0.4200
	11	M	24	College student	0.6368
	12	F	23	College student	1.9539
	13	M	22	College student	1.6824
	14	F	24	College student	1.4580
	15	F	24	College student	0.9592

Table 4. Z-scores according to 1 Type

Type	Q-Statement	Z-score
1	Q20.A North Korean refugee who acquired South Korean citizenship should be given the same rights as native South Koreans on voting and social security.	1.93
	Q31.North Korean refugees are our fellow countrymen and we are the same people.	1.87
	Q13.North Korean refugees can also be on the same social status as South Korean citizens as long as they work hard enough	1.68
	Q25.Continuous increase of North Korean refugees can cause social problems including unemployment and public disorder.	-1.71
	Q19.I could care less about a North Korean refugee family in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I wouldn't like to have a next door neighbor that is a North Korean refugee.	-1.59
	Q32.I would not like a North Korean refugee joining the same friendship group that I am in.	-1.43

3.2 제2유형 : 부정적 고정관념형

제2유형은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고정관념 및 편견 등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넘어왔으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므로 신뢰 할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거칠고 남한사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팽배하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24].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문항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Q16).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Q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우리나라의 다른 소외(취약)계층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다(Q23).’였다. 이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적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Q1).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내 가족의 배우자가 되어도 상관없다(Q21). 북한이탈주민에게 공무원 취업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Q30).’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제2유형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차별적 시각의 특징으로 보여 지는 것은 (Q16), (Q14), (Q23)이 결합되어 부정적 구조를 드러내 준다. 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차별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로는 “우리나라에도 배신하는 사람이 많은데 북한 출신이면 더 믿기 힘들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요직에는 정치·사회·문화적 동질감이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야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2유형을 ‘부정적 고정관념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 2 Type : Factor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N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Factor weight
2 (N=6)	3	M	22	College student	1.0698
	4	F	23	College student	1.9082
	7	M	23	College student	2.0109
	16	F	21	College student	0.7167
	17	M	24	College student	0.6049
	18	M	27	College student	1.2247

Table 6. Z-scores according to 2 Type

Type	Q-Statement	Z-score
2	Q16.It would be appropriate not to appoint a person that is a North Korean refugee on a posi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2.46
	Q14.It would be hard for me to accept and trust a Congress member, a mayor, or a governor who is of a North Korean origin to represent the area I live in.	1.64
	Q23.Settlement support poli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is excessive compared to that of other marginalized (vulnerable) class in South Korea.	1.31
	Q1.Privileged benefits for North Korea refugees should be improved.	-2.09
	Q21.I wouldn't mind my family member marrying a North Korean refugee.	-1.87
	Q30.Public institution quota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on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1.83

3.3 제3유형 : 중립 추구형

제3유형은 유형1과 유형2가 뒤섞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인데, 평소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인정하고 동정 및 구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주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 직면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이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정심에 기반한 막연한 지원은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중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3유형이 높은 동의를 보인 문항은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Q19). 정부의 관대한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의지를 약하게 만든다.(Q22). 대중매체(영화, 드라마, 뉴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지양되어야 한다.(Q4)’였다. 이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결혼)이주민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야한다.(Q18). 북한이탈주민에게 공무원 취업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Q30). 북한이탈주민에게 병역을 면제하여야 한다.(Q29).’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제3유형은 (Q18)에 강한 부정(Q4)에 긍정을 하고 있어 제1유형과 비슷한 유형인 것 같지만, (Q19), (Q22) 등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상반된 유형이라 하겠다. 이들이 이러한 이중적 의견을 보인 이유로 “평소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생각은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내 동료나 가족이

된다면 싫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립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제3유형을 ‘중립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3 Type : Factor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N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Factor weight
3 (N=4)	2	F	22	College student	4.8405
	5	M	24	College student	0.6963
	6	F	24	College student	0.5204
	10	F	28	College student	0.8805

Table 8. Z-scores according to 3 Type

Type	Q-Statement	Z-score
3	Q19.I could care less about a North Korean refugee family in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I wouldn't like to have a next door neighbor that is a North Korean refugee.	1.98
	Q22.Government's generous support poli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may reduce their self-sustainment.	1.59
	Q4.Public media(films, TV drama, news) should keep from expressing negative image towards North Korea refugees.	1.32
	Q18.North Korean refugee and foreign immigrants should be looked at as two different groups.	-1.87
	Q30.Public institution quota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on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1.82
	Q29.Mandatory military service obligation should be waived for North Korean refugees.	-1.56

4. 논의 및 결론

낙인은 그동안 다양한 정의로 표현되었는데 Jones 등(1984)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포함하는 고정관념에 특정 대상을 연결시키는 표식이라고 정의하였고, Falk(2001)는 특정 집단의 내부인이 외부인에 대하여 선을 그어 그 집단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표시라고 정의하였다[25,26]. Link와 Phelan(2001)은 사회적 낙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명명행위, 고정관념, 분리, 지위상실, 차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27].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시작된 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은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는데 제약이 따르고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 상실 등의 심리적 손상도 경험하게 된다[28]. 본 연구 결과 제 1 유형인 ‘우호적 지지형’은 종교와 인종, 문화가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다문화주의에 가장 가깝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존, 공생하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들은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한국사회가 점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범지구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의 다문화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공급되어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겠다[29]. 이 유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한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북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이탈주민 가족의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세밀한 지원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30,31]. 이 유형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인권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수용자의 주관적 성향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권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및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남한사회의 동반자로서 자리 잡아 나가는 사례들을 활용한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제 2 유형인 ‘부정적 고정관념형’은 북한이탈주민을 위장탈북에 따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신뢰 할 수 없는 대상이며 정치 및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기에 남한 사회에 동화 될 수 없고,

의존적이고 실리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국내정착지원 과정에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접촉해보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 정서가 강하고, 국내 주요 일간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비난 및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65%가 넘는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30,32]. 이렇듯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막연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여나갈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즉,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각 조정 측면에서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공중 간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공유와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공주의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데, 북한의 인권상황 및 북한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 등을 깊이 있게 알려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 탈북자가 아닌 정치적 이념 차원의 망명이라는 것을 알리는 미디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장기간 분단의 결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이질적인 면을 상호 인정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기관에서 다문화적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존중 의식을 기본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3]. 제3유형인 ‘중립 추구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및 낙인화에는 반대하지만 막연하게 북한이탈주민은 게으르며 이기적이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비인권적 생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다. 특히 이 유형의 특징은 남한체제가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이탈주민을 이등국민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이유를 기존 구성원과의 마찰 없이 남한사회체계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두고 있다. 본인의 의식 변화는 없이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킴으로써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취업, 경력인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문제와 본인이 관련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졌던 우호적 시각은 사라지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다양한 인식개선의 기회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많은 교류와 전문적인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지방정부·지역사회복지기관·학교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30].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의 주관적 구조와, 각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의 관점은 우호적 지지형, 부정적 고정관념형, 중립 추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수용자 세분화 전략에 입각한 공중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 상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으로 한정된 P Sample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이미지 범주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키마타(Thompson Schemata)방식을 적용하여, P Sample에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34].

REFERENCES

- [1]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 Y. P. Jong & S. J. Han. (2006). Foreign Workers as Minorities: Policy Conflict Analysis.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5(2), 157-184.
- [3] Y. P. Jong. (2006). A Study on Minority Problems and Minority Policie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635-649.
- [4] L. Wirth. (1945).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R. 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pp. 347-372).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5] 2017. e-country index. <http://www.index.go.kr>
- [6] 2016.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survey*. Seoul : Korea Hana Foundation.
- [7] K. H. Kim. (2015).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 Policies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Mediating Effect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social security*, 31(4), 1-27.
- [8] K. H. Chae. (2017). The Adapt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Effect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524-530.
- [9] I. H. Lee & H. J. Choi. (2017). Factors Influencing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2), 341-351.
- [10] H. S. Shin. (2017). Analyz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forming Arts That Promotes Trust Building.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1(2), 75-103.
- [11] J. W. Kang. (2017). The Linguist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 Centering on the language use of North Korean settl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2), 345-364.
- [12] H. K. Kim. (1997). Q Methodology and Creation of Advertising Message. *Operant Subjectivity*, 20(Issue 1/2), 28-29.
- [13] H. G. Kim. (2008). *Q Methodology :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 Communication Books, Inc..
- [14] J. S. Seong & E. Y. Yeom. (2016).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le Nurses Perceived by Female Nurses : An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572-584.
- [15] E. J. Yeun, H. J. Kim, M. S. Jeon & J. A. Yoon. (2012). A Comparison General Public and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5, 21-34.
- [16] M. Y. Jeon, M. H. Kim & J. M. Jo. (2007). Subjectivity on Aging:a Coorientational Approach.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14, 129-145.
- [17] C. H. Yang & J. Y. Lee. (2013). On the Use of Q Methodology in Research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Election Campaign Adverti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 115-126.
- [18] H. G. Kim & C. Y. Cha. (2008). Preference Factors in the Materials of Television Life-information Program.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17, 157-178.
- [19] H. J. Kim. (2015). A Convergence Study on Competitiveness Perception of Festival Specialists on Local Festival-Focusing on Q Meth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6), 133-139.
- [20] E. J. Kim. (2014). A Study on Type of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of New Nursing Staff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4), 443-454.
- [21] S. H. Ko, E. A. Park & M. A. Kim. (2014) The Typology of Gender Role Identity in Middle-aged Women using Q Method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449-456.
- [22] L. S. Ahn. (2016). A study on types of AIDS perception : Focus on Q-methodology Ap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46-53.
- [23] L. S. Ahn. (2018). Subjectivity about Sexual Minority : A Q-methodolog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527-539
- [24] K. M. Yang & J. K. Chung. (2005). The Effects of Contact with North Korean Residents on Trust and Acceptance by South Korean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1), 97-115.
- [25] E. E. Jones, A. Farina, A. H. Hastorf, H. Markus, D. T. Miller & R. Scott. (1984). *The dimensions of stigma*. In E.E. Jones et al (Eds.),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pp.24-79).New York, NY: Freeman.
- [26] G. Falk. (2001). *stigma : How We Treat Outsiders*. Amherst : Prometheus Books.
- [27] B. G. Link & J. C. Phelan.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28] M. G. Kim.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Designs for Social Stigma against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y based on the Social Interactionism.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47(5), 7-42.
- [29] S. W. Jin (2012). A Theoretical Approach to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 Problems and Sugges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5(1), 129-156.
- [30] H. S. Yoo & H. S. Lee. (2014). The conflict of recogni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 Focused on Incheon City.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20, 325-365.
- [31] Y. K. Cho & Y. H. Choi. (2011). A Study on Social Conflict and Integration-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423-446.
- [32] Y. H. Choi & S. Y. Kim. (2013). South Korea Embraced Us, but South Koreans Have Never Accepted North Korean Defectors. - An Analysis of the Comments Posted on Major Internet Portal Si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ole of Public Relations in

Communicating 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3), 187-219.

- [33] J. D. Park. (2015). A Case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 4(1), 109-124.
- [34] G. C. Thompson. (1966).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안 이 수(Ahn, Lee Su)

[정회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학 협동과정 보건정책 전공(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 E-Mail : whynot@shinhan.ac.kr